

김해 초정리 주택신축부지 내(국비) 유적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20. 4.



재단
법인

한반도문화재연구원

Hanbando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김해 초정리 주택신축부지 내(국비) 유적 발굴조사

I. 조사개요

1. 조 사 명 : 김해 초정리 주택신축부지 내(국비) 유적
2. 허 가 번 호 : 제2019-0389호
3. 조 사 지 역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642번지
4. 조 사 유 형 : 발굴조사
5. 조 사 면 적 : 173m²
6. 조 사 기 간 : 2020년 4월 20일 ~ 현재 조사진행중(실조사일수 5일)
7. 조 사 기 관 : 재단법인 한반도문화재연구원
8. 조사의뢰자 : 최민재氏

II. 조사경위 및 목적

사업자 최민재氏는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642번지 일원에 단독주택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에 대하여 김해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 결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 발굴제도과-7483호(2012.7.5.)로 통보된 김해 대동 초정마을 우회도로 개설부지 문화재보존대책 통보에 의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발굴(시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완료조치 후 착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받음. 이에 사업자 최민재氏는 한국문화재단에 소규모 국비발굴을 신청하였고 한국문화재단에서는 본 연구원 국비발굴 대행을 의뢰하였다. 이에 본연구원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집석유구, (추정)적심 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시굴조사 학술자문회(학술자문위원:임학중, 이동희)의는 2020년 3월 31일 조사현장에서 진행되었으며, “고려~조선시대 건물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유구, 유물이 확인된 트렌치를 중심으로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발굴조사는 학술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유구가 확인된 2·3트렌치 주변 면적 173m²에 대하여 2020년 4월 20일 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조사결과, 고려시대 방형 집석유구 2기 및 패각층 1개소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 조사단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조 사 단 장	조수현	한반도문화재연구원	원 장
책임조사원	서창호	한반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조 사 원	강상진	한반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준 조사원	김병규	한반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이남규	한반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사진 1. 조사대상지역 위성사진(출처:다음지도 편집)

Ⅱ.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

조사대상구역이 속하고 있는 김해시는 한반도의 동남단, 경상남도의 동남부에 위치한다. 경도와 위도의 극점은 동단 대동면 월촌리(동경 129도 0' 48", 북위 35도 16' 16"), 서단 진영읍 좌곤리(동경 128도 41' 47", 북위 35도 18' 12"), 남단 장유동(동경 128도 49' 44", 북위 35도 9' 10"), 북단 생림면 도요리(동경 128도 51' 59", 북위 35도 3' 31")로서 행정구역상 크게 동으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계를 두고 있으며, 북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밀양시와 접하며 남서쪽으로 창원시와 접하고 있다. 총연장 거리는 동서간 27km, 남북간 32km, 총면적은 463.26km²로서 우리나라의 총면적(99,393.81km²)의 약 0.5%, 경상남도의 총면적(10,518.3km²)의 약 4.4%를 차지해 도 내 20개 시·군 중에서 면적상으로는 13번째로 크다.¹⁾ 기후는 온대기후지역으로 4계절 구분이 뚜렷하고 남해의 해양성 기후 영향을 많이 받아 전국에서 가장 온화한 편으로 인간 활동에 좋은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15° 내외이고 평균 강수량은 1,200mm로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 1,274mm와 비슷하고 세계평균 강수량 973mm 보다는 많은 편이다.

지형적으로 북부지역은 소백산맥에서 뻗어 내린 지맥이 낙동강에 접한 낮은 산악지로 형성되어 평지가 적은 편이다. 서부지역은 龍池峯(해발 743m), 花山(해발 798m), 屈岩山(해발 662m)과 같은 높은 산지로 에워싸여 있으며 남쪽으로는 바다와 접한다. 또한 낙동강이 김해시 북쪽의 無隻山(해발 700m)에서 남쪽 神魚山(해발 630.4m)에 이르는 산맥의 동부지맥을 따라 흐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백산맥의 여러 지맥과 접하는 북부지역과는 달리 남부지역은 낙동강의 지류를 따라 넓고 기름진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구조는 예로부터 김해시를 중심으로 김해와 인근지역을 구분 짓는 자연경계가 되어 왔다.

특히, 한반도의 남단을 가로 지르는 낙동강은 동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북쪽 화포강과 밀양강의 합류지점에 비교적 넓은 충적지대를 형성하고, 이러한삼각주평야도 과거에는 대부분 江岸의 배후습지 상태였으나 근대에 이르러 자연퇴적이 증가하면서 제방축조와 매립에 의하여 지금과 같은 넓은 김해평야를 이루게 되었다.²⁾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김해시의 소하천으로는 주촌면 덕암리쪽의 황새봉에서 발원해 주촌면·장유면을 관류하는 조구천, 진례면 산본리의 남쪽 용지봉에서 발원해 진례면·생림면을 북류하여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화포천을 비롯해 동쪽의 대조천·예안천, 시 중심부의 해반천, 서쪽의 진례천·주촌천·죽동천, 서남쪽의 내삼천·죽동천 그리고 남쪽의

1)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2) 동아대학교박물관,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金海市』

을하천·사촌천 등이 있다.

김해지역의 전반적인 지질형태는 대부분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경상계 지층에 속한다. 경상계 지층의 기반은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류와 쥐라기 화강암으로 구성된 복합체이며, 백악기 이전의 시대인 중생 및 염기성 심성암류들이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지층은 남동방향으로 10° 내외의 경사를 가지나, 지역적으로 단층과 화성암체의 관입을 받은 지역에서는 30° 이상의 경사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국부적으로 소규모의 습곡구조가 발달되어있는 지역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성암인 섬록암 및 화강암, 분류암인 석영반암, 맥석으로서의 석영반암 및 규장석 등의 산성암과 섬록분암 등의 염기성암을 포괄하고 있다. 각 암석의 맥류는 서로 수반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간간히 석영맥 소화강암 또는 거정화강암의 소맥을 수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화강섬록암 등의 심성암을 이루고 있다. 이는 김해시를 중심으로 낙동강의 서부지역 및 가덕도 일대, 그리고 부산시와 양산시 등지에서 국부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양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낙동강 하류지역은 크게 중생대 백악기와 신생대 제4기 지층으로 나누어지는데 비해 김해지역의 산지는 백악기층이며 저지대는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지의 지질은 다시 백악기 상부의 불국사관입암류와 하부의 유천층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범방대에서 금병산 일대는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한다. 태정고개를 경계로 옥녀봉과 지질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굴암산, 마봉산, 보배산에 이르는 지산리의 외곽지대는 유석영안산암, 화산각력암이 산재하고 있다.³⁾

이를 토대로 김해시 일대의 세부적인 지질을 재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산지 구릉형성에는 지질조건, 특히, 암석의 차별침식이 비교적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즉, 기반암은 중생대 백악기에 조륙 및 침식, 화성활동과 조산운동으로 형성된 경상계지층을 구성하는 비해성 퇴적암이 퇴적된 이후에 이를 관입·분출한 화강암(각섬석화강암:Khgr, 흑운모화강암:Kbgr)등이 빈번한 협재로 인하여 복잡한 층서를 보이고 있다. 그 주변부 내에서도 해발 100~200m급의 독립된 침식성 저구릉이나 높은 산지구릉의 완경사면에서는 중생대 백악기 유천층군을 구성하는 정각산층(Kjk)이 각각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반면, 변성암으로 구성된 佛母山, 無隻山, 神魚山 등의 높은 산지는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커서 분지의 배후산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해발 450m 이상의 높은 산지가 이에 해당하며 중생대 백악기 유천층군을 구성하는 안산암 및 암산암질응회암(Kat) 및 유문암 및 유문암질응회암(Krt)이 기반암으로 각각 분포하고 있다. 이는 전자인 화강암(각섬석:Khgr, 흑운모:Kbgr)과 정각산층(Kjk)이 후자인 안산암 및 암산암질응회암(Kat), 유문암 및 유문암질응회암(Krt)보다 침식과 풍화에 상대적으로 약해 해발고도가 낮아지면서 산지구릉의 완경 사면 및 침식성 저구릉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김해평야 및 낙동강 지류 주변으로는 기반암, 사력층, 모래층, 패각을 포

3) 김해문화원, 2002, 『김해지리지』

4) 윤순옥·황상일, 2000, 「창원분지의 지형발달」, 『창원도계동유적 I』, 창원대학교박물관.

함하는 실트와 점토, 모래층이 주체가 되는 제4기 충적층(Qa)이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다.⁵⁾ 특히, 김해평야 일대는 회색토 및 충적토로 확인되고 있다. 회색토의 경우 김해동, 부용동, 해척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토양층은 해수의 작용으로 운반된 적된 해성토와 하천 운반퇴적토인 하성토가 혼합된 하해혼성평탄지 토양에 속하는 것으로 적어도 홀로세 해진극상기(B.P. 6,000년) 또는 B.P. 4,100년 이전에 이미 김해평야(舊 낙동강 하구 삼각주) 지역의 안쪽까지도 해역화가 확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로 본다면 그 당시 산지 및 구릉과 그에 접하는 선상지, 곡저 평야, 평야 내 독립(저) 구릉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해역, 즉 고김해만의 범위 내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충적토는 海畔川, 金剛川, 虎溪川 등이 형성하는 소규모의 선상지 내지는 곡저평야 구성물질, 하천 주변의 범람원성 퇴적물 등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호계동, 사촌동, 화봉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충적토는 그 분포범위와 형태로 보아 고김해만이 쇠퇴·소멸되는 단계 이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김해읍성을 포함한 주변일대 평지는 그 당시 해수면이 하강, 정체를 반복함과 동시에 낙동강의 영력이 활발해져 그 운반토사에 의해 고김해만이 매립됨으로서 점차 쇠퇴하게 되고 그 이후에 국지적으로 김해를 관통하는 하천(海畔川, 金剛川, 虎溪川 등)에 의해 형성된 퇴적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낙동강 하구 삼각주의 지형 발달은 내륙 쪽으로 이동하여 평야 내 독립구릉과 선상지성 곡저평야를 제외한 지역은 고김해만이 형성되고 퇴적되면서 김해 삼각주가 육지화되어 현재 김해평야가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김해만의 형성은 고김해만 형성의 이전단계, 형성발달 단계, 고김해만 쇠퇴소멸 및 김해평야 형성단계로 연구된 바 있다.⁶⁾ 삼한~삼국시대의 경우, 고김해만 형성발달 단계에 해당하며 당시 추정되는 해안선에 대부분의 유적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삼각주의 지형발달은 19세기까지도 소규모의 삼각주로 1,700년 전에는 해발 2m까지 해안선 이었다는 연구결과⁷⁾가 있으며, 김해만 성립기의 해발고도는 패총유적이 입지한 지점의 해발고도를 고려하여 0~2m로 추정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의 고고학적 증거는 김해 대성동고분군, 김해 봉황대유적을 비롯한 김해평야 일대의 층위적 양상에서 해성층과 바다모래가 확인되는 점과 김해 봉황대 유적의 퇴적층Ⅱ를 분석한 결과 저서성 유공층⁸⁾이 검출되어 퇴적당시 담수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연안성의 천해 내지 만의 환경이었을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확인 되었다.⁹⁾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김해 봉황동유적을 포함한 주변 일대는 과거 해안선과 인접한 곳에 입지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특히 현재 내외동 신도시가 자리한 일대는 내만을 형

5) 과학기술부(한국자원연구소), 1998, 『부산 지질도폭 설명서』(1:250,000)

6) 반용부·곽종철, 1991, 「낙동강하구 김해지역의 환경과 어로문화」, 『가야문화연구』 제2호.

7) 오건환, 1991, 「완신세후반의 낙동강삼각주 및 그 주변해안의 고환경」, 『한국고대사논총』 2, 가락국사 적개발연구회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8) 저서성 유공층은 천해대나 만에 특징적으로 분포하는 층

9) 부산대학교박물관, 1998, 「부록. 봉황대 진입로 개설구간 퇴적층의 미화석과 고환경」, 『김해봉황대 유적』

성하고 있었고 봉황동 구릉 서쪽 지역은 금관가야 의 항구였음을 증명하는 유적이 발굴 조사된 바도 있다.¹⁰⁾

한편, 김해의 광물자원은 선상부 대동계 화강편마암 및 낙동통과 신라통의 퇴적층, 그리고 중생대말엽 불국사통의 화산암 활동에 의하여 전기의 기저가 병입, 관 입·분출되어 다양한 유용광물의 광상을 구성하게 되었다. 특히, 상동면과 대동면은 낙동강과 접해 있고, 무척산을 비롯한 높은 산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낙동강의 맞은 편에 있는 양산시 물금지역과 함께 화강암상에 위치한 녹색분암층이 폭넓게 발달되어 있다. 이 분암에는 다수의 자철광상 및 적철광상, 황철광상이 있는데 과거로부터 여러 곳에서 노천굴에 의하여 채취한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2. 고고·역사적 배경

1) 고고학적 환경

駕洛國의 도읍지였던 김해는 낙동강의 하류에 위치하는데 시 전역은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고김해만의 형성단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인간 활동의 흔적을 밝힐 수 있는 구석기시대 유적은 지질시 대인 플라이스토세(B.P. 250만년~B.P. 1만년)에 해당되며 현재까지 밝혀진 구석기 시대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장유 율하에서 몸돌이 채집된 정황을 미루어 볼 때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¹⁾

신석기시대 유적은 고김해만의 성립시기인 B.P. 4,100년 이전으로 그 시기를 볼 수 있는데 홀로세로 들어서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역화 되면서 유적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은 낙동강 하구의 내만 입구에 위치한 범방패총¹²⁾과 내만 중앙부에 위치하는 수가리패총¹³⁾을 비롯하여 북정패총¹⁴⁾까지 신석기시대 전~ 중기의 패총이 조성되고, 그 이후에 김해평야의 안쪽의 농소리패총¹⁵⁾·화목동패총¹⁶⁾ 부근까지 패총이 확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기 유적들은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신석기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정착 생활 및 집단 거주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농경이 시작된 시기로 고김해만과 관련하여 기후의 한랭화와 해수면의 저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현재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이 시기 김해지역의 대표 유적은 크게 지식묘와 생활유적으

10) 심재용·김용탁, 2003, 「김해 봉황동유적 발굴조사-가야인 생활체험촌 조성부지 내-」, 『고구려 고고학의 제문제』

11) (재)경상문화재연구원, 2016, 『김해 율하 2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약식보고서』

12)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3, 『범방패총 I』.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9, 『범방패총 II』.

13) 부산대학교박물관, 1981, 『김해수가리패총 I』.

부산대학교박물관, 2001, 『김해수가리패총 II』.

14) 부산수산대학교박물관, 1993, 『북정패총』.

15) 부산대학교박물관, 1965, 『농소리 패총 발굴 조사보고』.

16) 동아대학교박물관, 1998, 『문화유적분포지도-김해시-』.

로 구분된다. 이른바 거석문화(megalith)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지식묘는 대체로 고김해만의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며, 중심부인 현재의 대성동·봉황동 일대를 넘어 주촌면·진례면·장유동·명법동 등지에서도 다수가 확인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평지(내동·대감리·수로왕릉 내)와 구릉의 능선과 사면(신용리·퇴래리 상소업), 구릉의 정상부(구지봉·회현동)에서 30여 곳 이상의 유적이 확인되었다.¹⁷⁾ 최근 율하천 인근에서 묘역시설을 갖춘 대형급의 지식묘 유적은 율하리¹⁸⁾와 구산동¹⁹⁾에서 조사된 바 있다.

생활유적은 구릉의 전 범위에서 형성되었는데 대성동 일대에 유존할 것으로 추정 되는 대규모 환호취락²⁰⁾을 비롯하여 고지성 집락이 확인된 어방동 유적²¹⁾,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부에 조성된 화정²²⁾내덕리²³⁾·대감리²⁴⁾ 유적에서 주거지와 수혈 등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특히, 대성동 환호취락은 청동기시대 중기~후기의 유적으로 최소 5중열의 환호가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환호취락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환호 및 내측 취락의 일부만이 소규모 발굴조사로 확인되고 있으며 택지 개발로 인해 훼손이 심한 편이라 정확한 규모는 아직 알 수 없다.

삼한~삼국시대는 고김해만 성립이후 시기로 전기가야연맹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금관가야는 철을 매개로 한 중국과 일본과의 중개무역을 통하여 물적 토대를 축적하게 된다. 먼저 생활유적을 살펴보면, 대청유적²⁵⁾·대성동 소성유적²⁶⁾·봉황동유적²⁷⁾·홍동유적²⁸⁾·회현리패총²⁹⁾ 등이 있다. 상기 유적들은 구릉뿐만 아니라 海畔川 및 주변지역 일대에서 주거지, 고상가옥, 패총 등 다양한 생활유구가 확인되었으며³⁰⁾, 봉황동 구릉의 사면 말단부를 따라 토성³¹⁾이 조사됨에 따라 이 일대가 금관가야 집단의 중심지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삼한·삼국시대의 고분 유적은 양동리고분군³²⁾으로 대표되는 潮滿川 水系의 집단 그리고 대성동고분군³³⁾과 구지로³⁴⁾를 중심으로 한 海畔

17) 동아대학교박물관, 1998, 『문화유적분포지도-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 2004, 『가야 탄생의 서막 김해의 고인돌』.
18)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 『김해 율하리유적Ⅱ』.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 『김해 율하리유적Ⅱ』.
19) (사)경남고고학연구소, 2009, 『김해구산동유적Ⅰ』.
20) (재)경남문화재연구원, 2007, 『김해 대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내 김해 대성동·동상동유적』.
(재)두류문화연구원, 2015, 『김해 대성동 89-18번지 건물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21) (사)경남고고학연구소, 2006, 『김해 어방동 무문시대 고지성취락유적』.
22) 복천박물관, 2009, 『김해화정리유적Ⅱ』.
23) 영남고고학회, 1997, 『발굴조사현황-김해 내덕리유적』, 『영남고고학』 21집.
24)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2, 『김해 대감리 감내 유적』.
25) 부산대학교박물관, 2002, 『김해 대청유적』.
26) 부경대학교박물관, 1998, 『김해 대성동 소성유적』.
27)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4, 『김해 봉황동 380-24번지 유적』.
부산대학교박물관, 2007, 『김해 봉황동 저습지유적 408-2·10·11번지』.
28) 동의대학교박물관, 2003, 『김해홍동유적』.
29) (재)삼강문화재연구원, 2009, 『김해회현리패총』.
30) 부산대학교박물관, 1998, 『김해봉황대유적』.
부산대학교박물관, 2002, 『김해회현리패총』.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5, 『가야인 생활체험촌부지 발굴조사보고서』.
31) (사)경남고고학연구소, 2005, 『봉황토성』.
32) 국립문화재연구소, 1989, 『김해양동리고분군』.
동의대학교박물관, 2008, 『김해양동리고분군Ⅰ』.
국립김해박물관, 2012, 『김해양동리유적』.
33) 경성대학교박물관, 2000, 『김해대성동고분군Ⅰ』.
경성대학교박물관, 2000, 『김해대성동고분군Ⅱ』.

川水系의 집단은 狗倮國의 중심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광개토왕 남정 이후 수장급의 고층 고분은 확인되지 않지만, 중소형 고분군인 칠산동³⁵⁾·퇴래리³⁶⁾·예안리³⁷⁾·화정³⁸⁾·망덕리³⁹⁾·내덕리⁴⁰⁾ 등의 유적은 6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축조되었는데, 상기 고분군에서 밝혀진 매장주체부는 목관에서 목곽으로, 목곽에서 석곽으로, 석곽에서 석실로의 변화과정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아울러 김해지역에는 삼국시대에 축성된 여러 성곽들이 분포되어 있다. 분산성(사적 제66호)⁴¹⁾은 김해 내 부로 이어지는 중요한 교통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축성되었으며, 낙동강 하구를 둘러싼 산지에는 양동산성(도 기념물 제91호)⁴²⁾과 능동산성·천곡성·내덕산성·신기성 등이 無隻山の 돌출된 구릉부에는 마현산성⁴³⁾·나전리 토루⁴⁴⁾ 등이 조사되었다. 한편, 김해평야 전 지역과 조사대상구역 주변 일대 등에는 다시 부원동·회현리 패총과 같은 해수산 패총이 조성된다.

고려~조선시대의 유적은 해수면의 하강, 정체를 반복하고 낙동강 영역이 넓어지면서 고김해만의 쇠퇴와 함께 현재의 김해평야의 골격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먼저, 고려시대 유적은 조선대 마애석불을 비롯하여 한림면의 안곡리 삼층석탑(경 남유형문화재 제24호)·감로사지·백련사지·명월사지·중봉사지·임강사지 등이 있다. 그리고 2006년 김해도서관 증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고려시대에 이르는 토성이 확인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초축된 토성은 다수의 소규모 발굴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규모와 진행방향이 규명되었고 방형의 평면 형태를 갖춘 전체길이 약 5,400m의 토성일 것으로 추정된다.⁴⁵⁾

조선시대의 유적은 동상동 사충단과 대성동에 위치한 김해향교(도유형문화재 제 217호), 대동면 주동리의 산해정, 흥동의 선조어서각 등의 유교 문화재를 비롯하여 치소인 김해읍성과 김해객사후원지(시도기념물 제4호)가 위치한다. 김해읍성과 관련 하여 읍성 내부의 건물지와 읍성의 부속시설인 해자 및 호안석축 등이 소규모로 다수 발굴조사 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분묘 유적들도 약 20여개에 달하는데 그 중 구산동유적⁴⁶⁾과 죽곡리유적⁴⁷⁾이 대표적이

경성대학교박물관, 2003, 『김해대성동고분군Ⅲ』.
 경성대학교박물관, 2010, 『김해대성동고분군Ⅳ』.
 대성동고분박물관, 2011, 『김해대성동고분군-68호분~72호분』.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김해대성동고분군-73호분~84호분』.
 대성동고분박물관, 2015, 『김해대성동고분군-70호분 주곽·95호분』.
 34) 경성대학교박물관, 2000, 『김해구지로고분군』.
 35) 경성대학교박물관, 2000, 『김해구지로고분군』.
 36) 경성대학교박물관, 2000, 『김해칠산동고분군Ⅰ』.
 37) 성균관대학교박물관, 1989, 『김해퇴래리고분군』.
 38) 부산대학교박물관, 1985, 『김해예안리고분군Ⅰ』.
 부산대학교박물관, 2000, 『김해예안리고분군Ⅱ』.
 39) (재)동서문화연구원, 2015, 『김해 망덕리유적Ⅰ』.
 40) 영남고고학회, 1997, 「발굴조사현황-김해 내덕리유적」, 『영남고고학』 21집.
 41) (사)경남고고학연구소, 1999, 『분산성 지표조사보고서』.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3, 『김해 분산성 동문지』.
 42)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3, 『김해 양동산성 동문지』.
 43)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3, 『김해 마현산성 복문·서문지』.
 44) (재)동서문화연구원, 2012, 『김해 나전리토루』.
 45)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3, 『김해고읍성』.
 46) (사)경남고고학연구소, 2009, 『김해 구산동유적』.
 47)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0, 『김해 죽곡리 유적Ⅱ』.

다. 적을 통해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분묘 형태 및 유물들이 출토됨에 따라 김해의 분묘 및 유물의 변화과정과 장례습속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김해 상동면 대감리 503번지 일원에서 조선시대 전기(14세기 말~15세기 중·후반)에 이르는 분청사기 가마 1기와 폐기장 3기 등이 확인된 유적 이 조사되었다. 특히, 가마 및 폐기장에서 출토된 분청 사기에는 ‘司膳’, ‘長興’의 官司銘이 상감된 발, 접시 등과 ‘金海’, ‘梁山’ 명이 새겨진 명문 분청사기가 함께 출 토됨에 따라 김해가 卍 ‘甘勿也村’이라는 분청사기 생산지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⁴⁸⁾

2) 역사적 환경

김해지역은 낙동강 하류역에 성립된 가야문화의 태동지로 일찍부터 철기를 사용 하게 됨에 따라 농경기술이 급속적인 발달을 하였으며 중개무역을 통하여 고대국가 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條의 기록에 의하면, 삼한시대에는 ‘狗耶國’⁴⁹⁾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등장한 후 ‘駕洛國’⁵⁰⁾으로 발전하였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김해는 駕洛國 또는 伽倻이다. 서기 42년 首露王이 가야를 건국하여 10대 491년 동안 계승되었다. 그러나 가야의 仇衡王(또는 仇亥王)이 신라 의 法興王 19년(532)에 항복하였는데, 신라는 駕洛國을 ‘金官郡’으로 고쳐 식읍을 하사하였다.⁵¹⁾ 그리고 文武王 20년(680) 5京제도를 실시하면서 ‘金官小京’이 설치된 후⁵²⁾, 景德王 16년(757)에 ‘金海小京’으로 개칭되었다.⁵³⁾ 신라 景德王 때의 행정개편은 별다른 변화 없이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초까지 오래 동안 지속되었다.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김해시의 행정과 명칭 변화는 『高麗史』를 비롯한 『世宗實錄』 「地理志」, 『輿地圖書』, 『慶尙道續撰地理誌』 등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에는 왕권에 대한 기여도, 왜구의 침입을 막는데 대한 기여도, 민란 발생 의 책임소재 등에 따라 각각의 행정구역을 승격 또는 강등되기도 하였는데, 김해지 역도 예외가 아니었다.⁵⁴⁾ 고려 초기인 太祖 23년(940) 김해의 행정 지명은 ‘金海府’에서 ‘臨海縣’으로 강등되었으나 곧 ‘臨海郡’으로 승격되었다. 지방제도가 완비되는 成宗 14년(995)에는 10도를 정하면서 安東大都護府로 크게 승격되었고, 顯宗 3년(1012)에 ‘金州’로 개칭하여 防禦使를 두었다. 元宗 11년(1270) 방어사 金暉이 밀성(지금의 밀양)에서 반란을 진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三別抄의 진출을 방어한 공로를 치하하여 ‘金寧都護府’로 승격되었다. 忠烈王 19년(1293)에 ‘縣’으로

48)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6, 「김해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49) 『三國志』 「魏書·東夷傳」 弁辰條. …弁辰狗耶國 弁辰走漕馬國… 국명이 ‘구사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耶’를 ‘邪’로 오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50) 『三國遺事』 「奇異」 二, 駕洛國記條.

51) 『三國史記』 卷四 「新羅本紀」 法興王 十九年條. …法興王十九年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 武力 以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52) 『三國史記』 卷七 「新羅本紀」 文武王 二十年條. …文武王二十年 加耶郡 置金官小京…

53) 『三國史記』 卷三 「雜誌」 卷三 地理一 新羅條. …永隆元年 爲小京 景德王改名金海京 今金州…

54)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www.gayasa.net/gaya>).

강등되 었으나 同王 34년(1308) 다시 ‘金州牧’ 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忠宣王 2년(1310) 에 ‘金海府’ 로 개편되었다.⁵⁵⁾

한편, 고려시대의 김해 즉, 金州는 고려 전국을 10都로 나누면서 경주와 함께 嶺東道の 주관 행정 기관으로 ‘安東大都護府’ 가 설치된 점과 金州는 김해지역 이외에도 咸安, 義安(창원)의 2郡, 淸浦(마산)·漆原(칠원)·熊神(진해)의 3縣은 김해의 통제를 받는 행정구역이었던 점, 文宗 때에 정해진 지방관의 녹봉 가운데 金州의 防禦使가 울산·예천·양산·안동 등과 함께 100섬을 받아 매우 높은 녹봉을 받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면 고려시대의 김해의 지역적 위상이 높았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배경 중에 하나는 金州가 가지는 교통 요충지로서의 요소도 크게 작용한 것 같다. 고려 시대의 전국 교통망 22道 525驛 가운데 하나인 金州道에는 31驛이 있었다고 하며, 德山(대동면 덕산리), 省仍(진례면 산본리), 赤項(장유면 관동리), 金谷(한림면 금곡리) 등 현재 김해에서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길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확립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근거로 볼 수 있다.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의 착취가 심해지면서 민중항쟁이 치열히 전개되는데, 김해 등지에서도 농민항쟁이 전개되 었다. 神宗 3년(1200) 8월에 金州에서 여러 성씨의 雜族人들이 착취하는 호족을 대상으로 봉기하였고, 忠烈王 19년(1293) 정월에는 丁吏 임대와 營吏 허반과 김언이 폭동을 일으켜 경상도 按廉使 유희를 죽였으며, 이 사건으로 金州는 한때 縣으로 강등되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 인 太宗 13년(1413)에 전국 각도의 首官을 두게 되는데 경상도에는 계림, 안동, 상주, 진주, 경산과 함께 김해를 首官으로 정하면서 ‘金海都護府’ 로 승격 되었다.⁵⁶⁾ 『世宗實錄』 「地理志」를 살펴보면, 당시 김해부의 호구 수는 1,290호이며 인구는 6,642명이었다.⁵⁷⁾ 그리고 文宗 2년(1452)에는 웅신현과 완보현을 ‘웅천현’ 으로 통합하여 縣監을 두었다.⁵⁸⁾ 世祖 5년(1459)에 金海鎭管을 설치해, 熊川(웅동)·莞浦(진해)의 2縣이 행정적으로, 창원·칠원·함안·고성·거제·진해·웅천이 군사적으로 각각 김해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⁵⁹⁾ 世祖 13년(1467)에는 지방군제 개편으로 경상우도병마절도사 관하의 鎭管을 설치하였다.⁶⁰⁾ 中宗 5년(1510)에는 齋浦(나이포, 웅천)·釜山浦(동래)·鹽浦(울산)의 일본거류민이 對馬島主와 함께 일으킨 三浦倭亂을 진압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이 발생한 宣祖 25년(1592)에는 가락면 죽동에 상륙한 왜군 제3군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으나, 결국 김해성이 함락되기도 하였다.⁶¹⁾ 英祖 35년(1759)에는 김해도호부의 호구 수가 8,511호에 인구가 33,05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⁶²⁾ 김해의 근·현대 행정변화를 살펴보면 高宗

55) 『高麗史』 卷五十七 地理二. …太祖二十年 改州府郡縣名 爲金海府 後降爲臨海縣 又陞爲郡 成宗十四年 改爲金州 安東 都護府 顯宗三年 更今名 元宗十一年 以防禦使金暉 平密城之亂 又拒三別抄有功 陞爲金寧都護府 忠烈王十九年 降爲 縣 三十四年 陞爲金州牧 忠宣王二年 汰諸牧 復爲金海府…

5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二, 金海都護府…太宗朝改爲都護府…

57) 『世宗實錄』 「地理誌」 慶尙道 晋州牧 金海都護府. …本府戶一千二百九十, 口六千六百四十二…

58) 『文宗實錄』 元年 十月日. …金海之熊神, 莞浦, 川邑三縣…

59) 주 55)과 동일.

60) 『大東地志』 卷十, 金海 沿革.

61) 『金海府邑誌』 人物條. 四忠士는 송빈·이대곤·김덕기·유제 등이다. 고종 8년(1871) 분산성에 사충단비를 세웠다.

62) 『輿地圖書』 金海都護府. …戶八千五百一十一戶 人口三萬三千五十口…

32년(1895)에는 23부제의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김해군이 되었다가 高宗 33년(1896)에 다시 都체제가 부활되었다. 1906년에는 대산면을 창원군으로 이관하고 양산군의 대저면과 대하면이 편입되었다. 1910년에는 21개 면이 13개 면으로 개편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을 통·폐합 하면서 밀양군의 하남면, 하동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14개 면과 134개 리로 개편하여 관할하였다. 1918년 좌부면과 우부면을 병합하여 김해면을 신설하고 1928년에 하계면을 진영면으로 개칭하였다. 1931년에는 김해면이 김해읍으로 승격되고, 1942년에는 진영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2읍 11면이 되었다. 한편, 일제 강점기의 김해지역은 토지수탈, 쌀 증산 및 수탈과 맞물려 김해삼각주의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동양척식회사의 김해농장이 회현리에 설치되었고 김해(1912)·대저(1916)·하동(대동, 1920)·낙동강(1936)의 수리조합이 조직되면서 제방을 쌓고 수문을 만드는 수리공사를 진행하면서 농토를 개간하게 되었는데 무상에 가깝게 착취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1914년에는 김해금융조합을 설치하면서 김해의 금융권을 장악하게 되고 1915년에는 일본인 우지모토(氏本太市)의 녹산광산 개발을 비롯하여 1926년에 기하라(氏本太市)의 생림 아연광산 등도 이 시기에 채굴되었다.⁶³⁾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1978년에 서낙동강에 위치한 대저읍·명지면, 가락면의 강동지구가 부산시 북구로 편입되었으며 1981년에는 김해읍이 김해시로 승격해 김해군 1개 읍, 9개 면과 김해시로 분할되었다가 1983년에 김해군 생림면의 금곡리와 생림리 일부가 이북면에 편입되었다. 1995년 도농통합에 따라 김해군과 김해시가 통합되어 1읍 7면 10동의 김해시가 되었다. 1998년 9월에 칠산동과 서부동을 통합하여 칠산 서부동이 되었으며, 2013년 7월에는 장유면이 장유1·2·3동으로 분동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2017년 2월) 김해시는 1읍 6면 12동 101 법정리동 729마을의 행정구역을 갖추게 되었으며, 면적은 463.26km², 세대 및 인구는 각각 200,619세대 529,577명의 인구가 등록되어 있다.⁶⁴⁾

63) 주55)과 동일.

64) 주55)과 동일.



도면 1. 해동지도(1750년 제작,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어학원)

3.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현황⁶⁵⁾

1) 초정리 유물산포지

본 유적은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739번지 일원에 소재하는 삼국~조선시대 유물산포지로서, 초정리 유물산포지는 「김해 대동면 초정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구간 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상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유적은 초정마을의 북쪽과 서쪽 외곽을 우회하는 사면 말단부와 곡간부에 해당되며, 현재 임야·전답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



사 당시 지표상에서 삼국시대 타날문 토기와 개편, 장경호편, 대호편 등이 채집되었으며, 고려~조선시대 자기편과 도기편도 채집되었다. 초정리 유물산포지의 분포범위는 초정마을 외곽의 사면 말단부와 전답을 포함하고 있으나, 마을 내의 밭에서도 토기편과 자기편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유적의 분포범위는 더 광범위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김해 초정리 655번지 일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본 유적은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고상식건물지 2동, 수혈 11기, 구 1기, 주혈 13기 등, 모두 27기의 유구가 확인·조사되었다. 각 유구간의 중복관계로 보아, 고상식건물지가 폐기된 이후 수혈유구가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혈유구·구·주혈군 등은 평면형태 및 배치상에서 정형성 없이 중복해서 조성되었다. 당시 조사단은 출토유물로 보아, 수혈유구와 구는 4~5세기대에 조성되었으며, 내부 퇴적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매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김해 대동지구 배수개선사업부지 내 시굴대상지

본 조사대상지역은 낙동강 삼각주의 최상부 지역으로서, 상부 삼각주 평원의 배후습지에 해당된다. 조사대상지역의 북서 일부는 까치산과 백두산으로 이루어진 배후산지의 곡저 평야부로, 저산성 구릉지가 주변에 발달되어 있다. 당해 조사대상지역은 단지형 9개 지점과 수로 4개 지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시 조사단은 조사의 편의상 69번 지방도

65) 문화재 GIS 인트라넷 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의 북쪽 예안리고분군 주변을 I 구역, 마산의 남쪽을 II 구역, 마산의 서쪽인 마산양수장 인근 구역을 III 구역으로 임의 명명해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I·III 구역에서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I 구역에서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토기편, III 구역에서는 고려시대 토기편과 조선시대 백자편 등이 수습되었다.

4) 김해 예안리고분군(사적 제261호)

본 유적은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69-6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삼국시대 대규모 고분군으로서, 백두산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연접해서 해발 60m 정도의 독립된 야산에 마산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1976~1978년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으로, 김해지역 삼국시대 묘제의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표지적 유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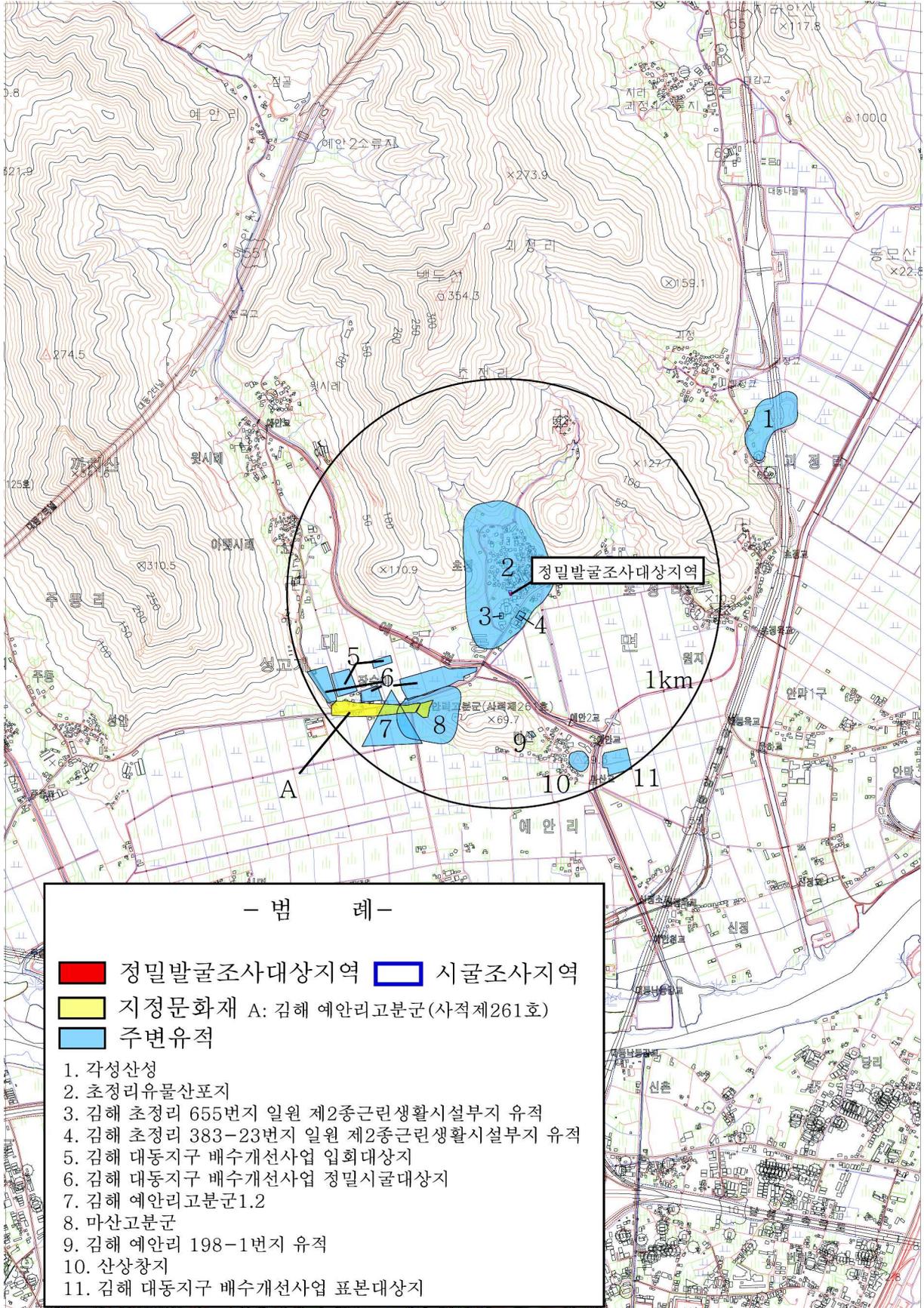


발굴조사결과 목곽묘 59기, 석곽묘 93기, 석실묘 13기, 옹관묘 17기 등, 모두 182기의 각 시대별·종류별 묘제유구가 확인되었다. 또한 예안리고분군은 분묘 88기에서 남성 33구, 여성 30구, 소아 31구 등 125구의 인골이 검출되었다. 인골의 평균신장은 남성이 160cm, 여성이 150cm으로 밝혀졌으며, 옹관의 피장자가 신생아와 유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적의 조성시기는 3~7세기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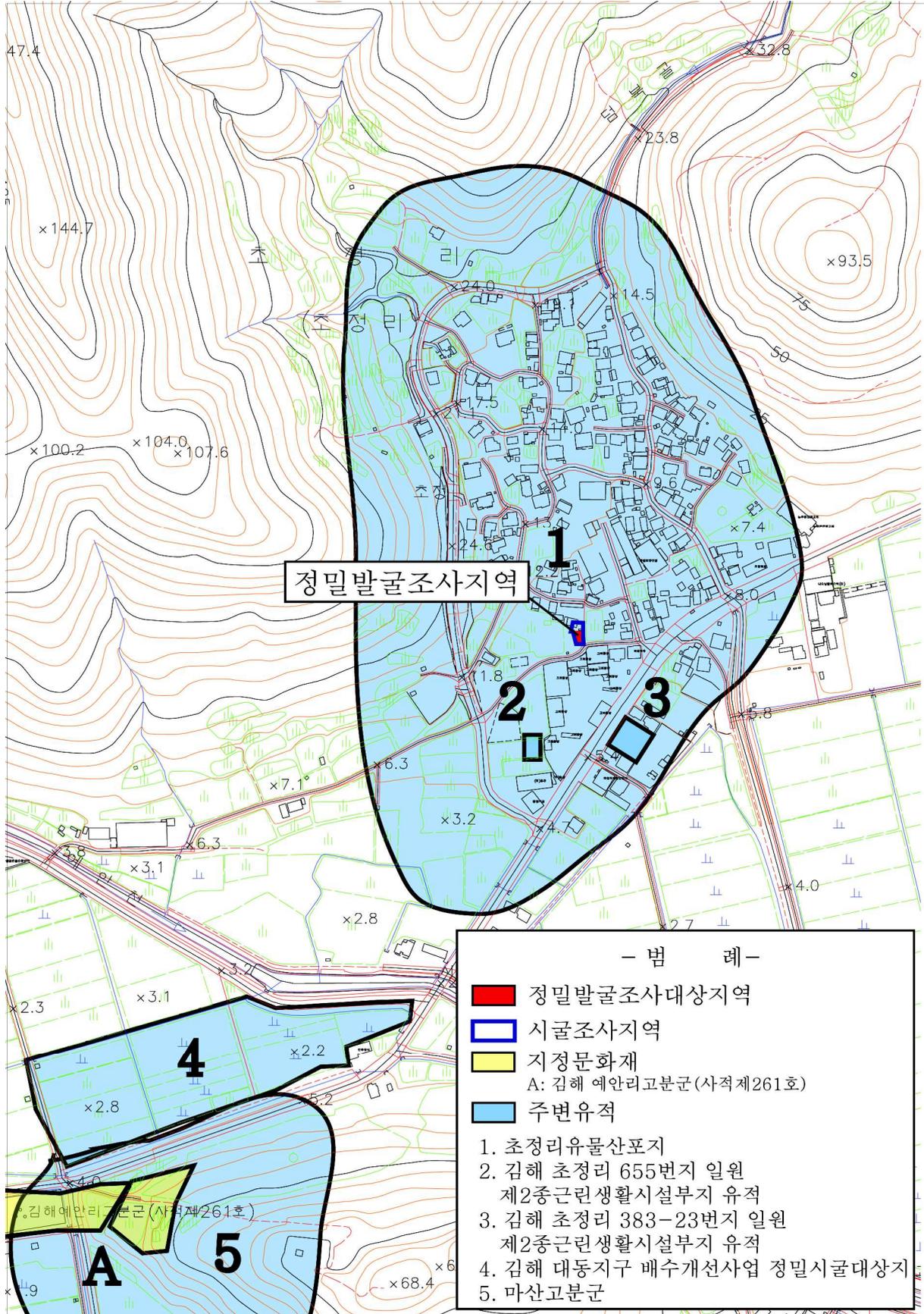
5) 마산고분군

본 유적은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68번지 일원에 소재하는 삼국시대 고분군으로서, 김해 예안리고분군의 동쪽에 근접하고 있는 야산에 형성되어 있다. 마산고분군은 예안리고분군의 일부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예안리고분군이 주로 평지에 입지한 유구로만 조사가 되었고, 야산에 고분군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시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은 당시 주민들의 장제나 시기적인 위치 선정의 변화 등과 같은 성격을 규명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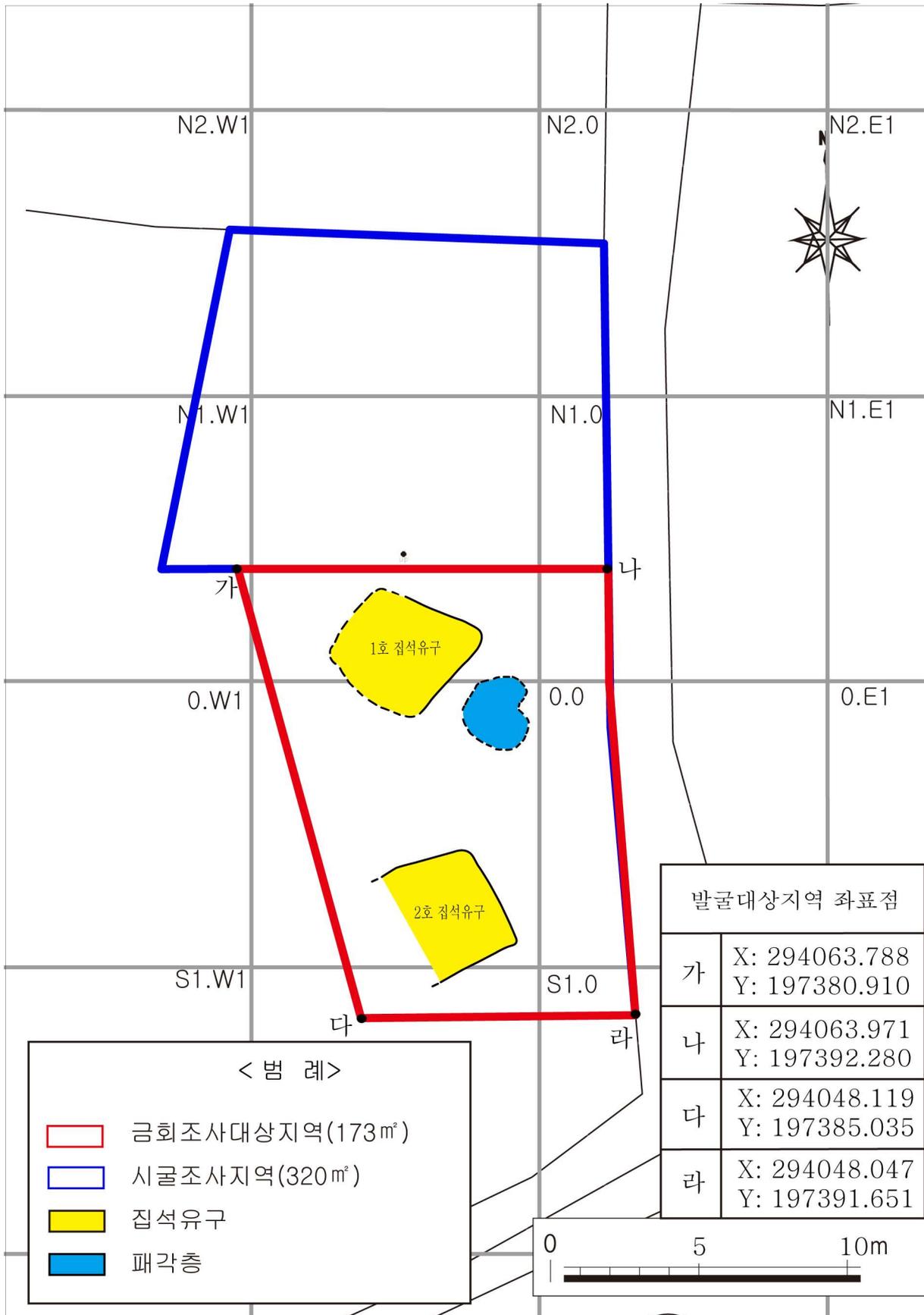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현황도(1/25,000)



도면 3.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 지형도(1/5,000)



도면 4. 조사대상지역 유구현황도(1/200)

Ⅲ. 조사내용

1. 조사대상지역 현황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지역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642번지 일원으로, 초정리마을 남쪽에 위치하며, 조사 직전에는 나대지 상태였다. 북쪽과 서쪽은 음식점, 공장 등의 건축물 조성과 도로가 개설되었고, 동쪽과 남쪽은 경지정리 및 하우스 조성으로 원지형이 현상변경된 상태이다. 전체적인 지형은 백두산(354.3m)에서 뺀 지맥이 유수의 침식 등을 받아 형성된 선상지성 지형의 선단부에 해당되고, 남쪽에는 예안천이 대동면을 서-동쪽으로 관류하여 낙동강에 합류한다. 이러한 지형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마을 또는 생산유적이 입지하기에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본 조사대상지역 역시 상기의 입지적 우월성을 시사하듯 ‘초정리 유물산포지(동서문물연구원, 2012)’ 내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지의 남쪽으로 약 150m 이격된 ‘김해 초정리 655번지 내 유적⁶⁶⁾(강산문화연구원, 2017)’에서는 굴립주건물지 2동, 수혈 11기, 구 1기, 주혈 13기 등 모두 삼국시대 유구 27기가 조사되었고, ‘초정리 383-23번지 내 유적⁶⁷⁾(가야역사문화연구원, 2019)’에서는 삼국~고려시대 문화층(IV층)에서는 구상유구 1기, 수혈 5기, 주혈 14기 등 모두 20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들 유적은 예안리고분군 축조집단과 관련된 생활유적으로서, 조성시기는 4~5세기대로 추정된다. 또한, 남서쪽으로 500~600m 떨어진 낮은 구릉에는 ‘김해 예안리고분군(사적 제261호)’ 과 마산고분군 등의 삼국시대 고분유적이 조성되어 있다. 이 중 김해 예안리고분군은 고대 김해지역 장제문화를 알려주는 표지적 유적으로 인정되어, 사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본 조사대상지역은 이전에는 현대가옥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철거하고,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발굴조사 시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문화층을 중심으로 전면제토를 실시하였으며, 확인된 유구는 평면 및 토층 단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전·중·후 과정을 사진 및 기록으로 남겼다. 조사가 완료된 후 유적에 대해 항공사진 촬영 실시하고 GPS로 유구 현황을 측량하였다.

66) 강산문화연구원, 2017, 「경남 김해 초정리 655번지 일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정밀)조사 결과보고서」.

67) 가야역사문화연구원, 2019, 「김해 초정리 383-23번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사진 2. 조사대상지 남벽토층



사진 3. 조사대상지 북벽토층



사진 4. 조사대상지 동벽토층(기준토층)

2. 층위

조사지역의 층위는 크게 3개층으로 구분된다. 상층으로부터 I 층은 갈색점질사토(표토층), II 층은 암갈색점질사토(복토층), III 층은 암흑갈색점질사토(자연퇴적토), IV 층은 황갈색 역석+점질사토층(기반층) 순으로 퇴적되었다. 유구는 기반층에서 조성되었다. 현대 복토층, 3층은 자연퇴적층, 4층은 원지반층인 역석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III 층의 암흑갈색점질사토층 내에서는 삼국, 고려, 조선시대의 유물이 층내에서 확인되며, 유구는 IV 층인 기반층에서 조성되었다.

3. 조사내용

유적 내에서 확인된 유구는 방형의 집석유구 2기와 패각층 1개소가 확인되었다. 집석유구는 시굴조사 당시 2번과 3번 트렌치에서 확인된 유구이다.

집석유구 1호는 조사대상지 북쪽에 치우쳐 해발 5m 상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30cm 떨어져 패각층이 위치한다. 유구는 시굴조사 당시 2번 트렌치에서 확인되었으며, 기반층을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주축방향은 남서-북동향으로 등고선과 직교하게 축조되었고, 평면형태는 방형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370cm, (잔존)너비 330cm, 깊이 8cm 정도로 유구의 서쪽과 남쪽은 삭평되었다. 유구 외곽 및 내부에 5~20cm 정도의 활석이 집석되었으며, 석렬등의 정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내부 퇴적토는 목탄알갱이가 소량 혼입된 황갈색점질사토가 잡석과 함께 퇴적되었다. 유물은 유구 중앙부 주변 바닥에서 도기 동체부편 3점이 출토되었다.

집석유구 2호는 조사대상지 남쪽에 치우쳐 해발 4.5m 상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5m 떨어져 1호 집석유구가 위치한다. 유구는 시굴조사 당시 3번 트렌치에서 확인되었으며, 기반층을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주축방향은 남서-북동향으로 등고선과 직교하게 축조되었고, 평면형태는 방형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360cm, 너비 350cm, 깊이 10cm 정도로 유구의 동쪽과 남쪽은 삭평되었다. 1호 집석유구와 동일하게 외곽 및 내부에 5~20cm 정도의 활석이 집석되었으며, 석렬등의 정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내부 퇴적토는 목탄알갱이가 소량 혼입된 황갈색점질사토가 잡석과 함께 퇴적되었다. 유물은 유구 중앙부 북쪽으로 치우쳐 도기 구연부편 1점과 도기 동체부편 2점이 출토되었다.

패각은 조사대상지 중앙에서 북쪽으로 치우쳐 해발 4.5~5m 상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30cm 떨어져 1호 집석유구가 위치한다. 제토 후 기반층 상면에서 굴착없이 일정범위의 부정형으로 패각이 흩어져 확인되었다. 패각의 범위는 규모 길이 220cm, 너비 170cm 정도로 단면조사에서 두께는 2~3cm 내외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패각층 상부에서 도기 구연부편 1점, 도기 동체부편 1점이 출토되었으며, 동물뼈도 일부 확인된다. 패각은 자연적인 혼패토층이 아닌 인위적인 패각의 폐기로 판단된다.

[표 1] 유구 제원표

유구명	평면형태	규모(m)			주축방향	출토유물
		길이	너비	깊이		
1호 집석유구	방형	370 (잔존)	300 (잔존)	8	남서-북동향	도기 동체부편 3점
2호 집석유구	방형	360 (잔존)	350	10	남서-북동향	도기 구연부편 1점, 도기 동체부편 1점
패각	부정형	220	170	2~3 (두께)		도기 구연부편 1점, 도기 동체부편 1점

IV. 조사결과

1. 본 발굴조사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642번지에 해당하며, 최민재氏가 단독주택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이다. 발굴조사는 2020년 3월 23일 문화재청의 허가(제2020-0389호)를 받아 2020년 4월 20일 착수하였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2. 금회 조사대상지역은 ‘초정리 유물산포지’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사전 실시된 시굴조사에서 고려~조선시대 건물지로 추정되는 집석유구가 확인되었다. 2020년 3월 31일 조사현장에서 진행된 학술자문회(학술자문위원:임학중, 이동희)의에서 “인접한 곳에서 기 조사된 사례를 보면, 고려~조선시대 건물지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유구·유물이 확인된 Tr.를 중심으로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3. 발굴조사는 학술자문회의 의견에 따라 시굴 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2번·3번 트렌치 주변 면적 173㎡에 대해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토층의 퇴적양상은 크게 3개층으로 구분된다. 상층으로부터 I 층은 갈색 점질사토(표토층), II 층은 암갈색점질사토(복토층), III 층은 암흑갈색점질사토(자연퇴적토), IV 층은 황갈색 역석+점질사토층(기반층) 순으로 퇴적되었다. 유구는 기반층에서 조성되었다. 현대복토층, 3층은 자연퇴적층, 4층은 원지반층인 역석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III 층의 암흑갈색점질사토층 내에서는 삼국, 고려, 조선시대의 유물이 층내에서 확인되며, 유구는 IV 층인 기반층에서 조성되었다.

4. 유구는 방형의 집석유구 2기와 패각층 1개소가 확인되었다.

집석유구는 시굴조사 당시 2번·3번 트렌치에서 확인되었으며, 기반층을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주축방향은 남서-북동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규모는 (잔존)길이 360~370cm, (잔존)너비 330~350, 깊이 8~10cm 정도이다. 유구 외곽 및 내부에 5~20cm 정도의 할석이 집석되었으며, 석렬등의 정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내부 퇴적토는 목탄알갱이가 소량 혼입된 황갈색점질사토가 잡석과 함께 퇴적되었다.

패각층은 조사대상지 중앙에서 북쪽으로 치우쳐 해발 4.5~5m 상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30cm 떨어져 1호 집석유구가 위치한다. 제토 후 기반층 상면에서 굴착없이 일정범위의 부정형으로 패각이 흩어져 확인되었다. 패각의 범위는 규모 길이 220cm, 너비 170cm 정도로 단면조사에서 두께는 2~3cm 내외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패각층 상부에서 도기 구연부편 1점, 도기 동체부편 1점이 출토되었으며, 동물뼈도 일부 확인된다. 패각은 자연적인 혼패토층이 아닌 인위적인 패각의 폐기로 판단된다.

V. 회의 안건

1. 조사된 유적의 성격
2. 유적의 향후 처리방안
3. 기타

발굴조사

관련사진



사진 5. 조사대상지 원경



사진 6. 조사전 전경



사진 7. 제토 후 전경



사진 8. 조사 완료 후 전경



사진 9. 1호 집석유구 조사전 전경



사진 10. 1호 집석유구 조사중 전경



사진 11. 1호 집석유구 조사후 전경



사진 12. 1호 집석유구 토층



사진 13. 1호 집석유구 유물 출토상태



사진 14. 2호 집석유구 조사전 전경



사진 15. 2호 집석유구 조사중 전경



사진 16. 2호 집석유구 토층



사진 17. 1호 집석유구 유물 출토상태



사진 18. 패각층 범위



사진 19. 패각층 단면 조사후 전경



사진 20. 패각층 단면



사진 21. 패각층 내 유물 출토상태



사진 22. 패각층 내 동물뼈 출토상태



사진 23. 조사대상지역 동벽 토층(기준토층)